

참사 소환한 스크린, 치유를 이야기하다



한국영화들이 전 국민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긴 재난과 참사를 스크린으로 소환하고 있다.

1995년 삼풍백화점 참사를 모티브로 한 영화 '가을로'(2006)나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소재로 한 '로봇, 소리'(2016) 등 그동안 참사를 다룬 작품들이 간간히 나오긴 했지만, 올해는 유독 여러 편이 쏟아졌다.

여전히 후유증과 아픔을 안은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사회적 비극을 영화라는 오락적 틀 안에 담아내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잊힌 기억과 문제의식을 다시 환기하고, 트라우마를 함께 극복하려는 시도는 한국영화가 가진 공격기능의 하나로,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주제 의식 없이 소재 그 자체로 활용하는 데 집중한 '소재주의'나 의무감과 강박감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개봉한 '별세'(김보라 감독)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발생한 1994년을 배경으로 중학교 2학년 은희의 일상을 그린다. 영화가 주목하는 것은 그 시절 학교와 가정, 사회에 만연한 폭력성이다. 학교에서는 입시라는 명분으로, 가정에서는 가부장제라는 틀 안에서, 사회에서는 성장제일주의 혹은 선진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열망 아래서 폭력적 상황이나 폭력성이 당연시된다.

영화는 그런 시대적 공기와 폭주하는 국가적 열망이 압축된 사고가 성수대교 붕괴 참사라고 말한다. 끊어진 다리의 참사는 어린 은희의 눈과 뇌리에 깊이 박힌다. 김보라 감독은 "사회적 재난과 정치적 사건이 개인의

성수대교 붕괴사고 다룬 '별세'

세월호 아픔 그린 '생일' 등

우리 사회 비극의 역사 되짚으며

애도 통해 트라우마 극복 노력

삶과 어떻게 충충히 엮여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는 11일 개봉하는 '힘을 내요, 미스터 리'는 '좀 모자라는' 아빠와 혈액암을 앓는 어린 딸이 우연히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중반까지는 낯익은 코미디 영화지만, 뒤로 갈수록 본색을 드러낸다. 아빠의 과거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와 오버랩되면서부터다. 코미디와 재난의 이중교배는 익숙하면서도 꽤 위험한 시도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관객의 반감만 살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엑시트'의 흥행 성공에서 보듯 잘 만들면 대중적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주제 및 스토리, 연기, 연출 삼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힘을 내요, 미스터 리'는 삼박자를 맞추기보다는 오로지 반전을 위해 내달린다. 그래도 이 영화의 치트키(비장의 무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단점들을 덮을 만큼 진정성이 느껴져서다.

이계벽 감독은 "그 당시 (참사 현장에 있었던) 소방관들을 만나면서 '영화를 안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상처가 깊고,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계신 것을 알고 난 뒤에는 다시 뒤돌아볼 수 없었다. 그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진솔하고 자세히 그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올해 5주기인 세월호 참사를 다룬 상업영화도 2편 나왔다. 사고로 아들을 잃은 유가족 이야기를 다룬 '생일'(이종언)은 진정한 애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선부른 위로를 건네기보다 유가족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비추는 정공법을 택했다. 관객은 그저 그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슬픔과 상실감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게 된다.

'악질경찰'(이정범)은 세월호를 범죄 역전 장면에 녹인 경우다. 각종 비리와 범죄를 일삼던 경찰이 자신보다 더 악인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열개다. 그 속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친구를 등장 시켜 참사와 연결 고리를 만들었다. 희생된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죄책감을 표현하려 했지만, 다소 투박한 연출과 스토리 탓에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강유정 평론가는 "역사적인 참사를 재연할 때는 시간적 거리가 있어야 관객들이 허구가 결합한 역사로 영화를 받아들인다"며 "시간상으로 가까운 일일수록 접근할 때 조심해야 한다. 한국전쟁도 관련 상업영화가 나오기까지 4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전찬일 평론가는 "한국영화는 200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발언과 문제 제기를 통해 공론장적 기능을 해왔다"면서 "한국영화들이 비극의 역사를 늦게라도 반성적으로 짚으면서 이를 극적, 오락적으로 승화시켜 대중에게 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했다.

'폐암 투병' 개그맨 김철민 릴레이 응원

유재석·박명수·조세호 등 개그계 문병·후원금 줄이어

'유스님' 유재석부터 박명수, 조세호, 남창희까지 연이어서 폐암 투병 중인 개그맨 겸 가수 김철민의 쾌유를 기원하며 마음을 보태고 있다.

김철민은 지난달 7일 폐암 말기 판정 소식을 알려 많은 이에게 충격을 안겼다. 특히 나훈아 닮은꼴로 사랑받은 그의 친형 고(故) 나훈아를 포함한 가족들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밝혀지며 더욱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김철민은 최근 자신의 SNS에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 남창희 씨가 바쁜 일정에도 병문안을 와줘 고맙다"라고 적고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유재석 일행은 김철민에게 병원비에 보태라며 후원금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철민의 30년 지기 친구인 박명수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김철



김철민(왼쪽)과 박명수

민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MC로 활약 중인 TV조선 예능 '아내의 맛'을 통해 그와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2일 '아내의 맛' 제작진에 따르면 박명수는 투병 중인 김철민을 방문해 함께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박명수와 김철민의 특별한 만남은 오는 3일 밤 10시 방송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아이유×여진구 반짝였던 '케미'

'호텔 델루나' 종영...막방 시청률 12%·OST 등 인기

한여름 간담을 서늘하게 한 귀신들, 화려한 컴퓨터그래픽(CG)에 힘입은 판타지 세계, 달콤한 로맨스까지 잘 짜인 '종합선물 세트'였다. 2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방송한 tvN 주말극 '호텔 델루나' 마지막회 시청률은 12.0%(이하 비지상과 유료가구)를 기록했다. 자체 최고 성적이다.

최종화에서는 장만월(아이유 분)의 호텔 델루나가 사라지고, 구찬성(여진구)과 아름답게 이별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달의 객잔 '호텔 블루문'의 주인공으로 김수현이 깜짝 출연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아이유는 꼬리 아홉개는 달렸을 것 같은

장만월을 매력적으로 구현해내며 넷플릭스 영화 '페르소나'가 호불호를 남긴 것을 딛고 '나의 아저씨'(2018)에 이어 또 한 번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데 성공했다.

여진구도 능글맞으면서도 순수하고 울곧은 구찬성 역을 안정적으로 소화해내며 안전한 성인 연기자로서 아이유와 좋은 로맨스 호흡을 보여줬다.

한편, '호텔 델루나' 후속으로는 '아스달 연대기' 파트3를 방송한다.

'호텔 델루나'가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둔 가운데 '아스달 연대기'가 시즌3에서는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쿤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웰컴2라이프(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음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살릴하는 남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경성판타지	00 SBS 12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험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우리말 겨루기(재)		20 뿌까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팔도밥상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00 제46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모두 다 쿤따리(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00 5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덕화TV2 덕화다방	55 웰컴2라이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1~2부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오솔밭 김제동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	0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00 리틀 포레스트
11	35 UHD 숨터 40 거리의 만찬(재)	10 지식채집프로젝트 베프이	05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KBS 뉴스 40 KBS 걸작 다큐멘터리(재)	0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00 100분 토론	40 나이트 라인

EBS1

<p>07:00 로보가 폴리 07:15 꼬마버스 타요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페파 피그 08:00 당동당 유치원 08:30 띠띠뽀 띠띠뽀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출몰! 슈퍼핑크 09:15 마샤와 곰 09:30 윈더볼츠 09:40 아기 동물 귀여워 10:00 지식의 기쁨 10:30 한국기행(재)</p>	<p>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건축탐구 - 집 13:00 EBS 다큐프라임 13:55 히어로즈 트립 14:55 꼬마버스 타요(재) 15:10 로보가 폴리(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15:55 출몰! 슈퍼핑크(재)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25 마샤와 곰(재) 16:40 당동당 유치원(재)</p>	<p>17:00 EBS 뉴스 17:20 그림을 그려요(재) 17:30 페파 피그(재) 18:00 생방송 토틀톡! 보니하니 19:00 스파이더맨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TV로 보는 원작동화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21:30 한국기행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건축탐구 - 집 23:35 미래교과 플러스</p>
--	---	--

☎010-9790-8237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3일 (음 8월 5일 癸卯)

<p>子 36년생 시도한다면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48년생 조짐을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리라. 60년생 이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보인다. 72년생 일독일실 하리라. 84년생 파격적인 조건일 것이다. 96년생 실리가 따를 것이다.</p> <p>행운의 숫자 : 33, 84</p>	<p>午 37년생 유독 빼어난 것이 보이니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49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자. 61년생 방향을 잘 잡아야 할 시점임을 알라. 73년생 파도가 높으니 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음을 알고 조심하라. 85년생 어지간하면 그만 끝내라. 97년생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정된다.</p> <p>행운의 숫자 : 05, 50</p>	<p>未 32년생 양자는 상호 관련 되어 있지 않고 제각각이니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42년생 하등의 문제가 없다. 54년생 원하고 있었던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66년생 근원을 찾아본다면 새롭게 얻는 바가 있을 것이나, 78년생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과감하게 진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90년생 어차피 어긋나게 되어 있으니라.</p> <p>행운의 숫자 : 86, 07</p>
<p>丑 38년생 의도하였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50년생 대범하게 처리하는 것도 근사한 일이다. 62년생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거든 가부 찬반의 입장을 분명히 해둬야만 할 것이다. 74년생 개척 정신을 발휘 한다면 크게 활로를 열릴 것이다. 86년생 자발적으로 응하는 것이 유익하다. 98년생 일관력 지어놓고 보자.</p> <p>행운의 숫자 : 39, 86</p>	<p>申 39년생 부담이 따를 수 있으니 각오하라. 51년생 무난한 상태에서 대체적인 성과가 보인다. 63년생 어두움이 사라지면 희망의 광채가 밝아 온다. 75년생 편견에 사로잡힌다면 나쁜 상황이 된다. 87년생 불필요한 걱정은 심신을 쇠잔케 할 뿐이다. 99년생 주된 것을 등한시하고 종된 것에 관심을 둘 수도 있겠다.</p> <p>행운의 숫자 : 94, 04</p>	<p>酉 31년생 우연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43년생 겉모습만 달리하고 있을 뿐 내면은 차이가 없다. 55년생 지나간 일을 되돌아본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67년생 별다른 문제점이나 이익이 없다. 79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이 보인다. 91년생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p> <p>행운의 숫자 : 84, 63</p>
<p>寅 39년생 부담이 따를 수 있으니 각오하라. 51년생 무난한 상태에서 대체적인 성과가 보인다. 63년생 어두움이 사라지면 희망의 광채가 밝아 온다. 75년생 편견에 사로잡힌다면 나쁜 상황이 된다. 87년생 불필요한 걱정은 심신을 쇠잔케 할 뿐이다. 99년생 주된 것을 등한시하고 종된 것에 관심을 둘 수도 있겠다.</p> <p>행운의 숫자 : 94, 04</p>	<p>卯 40년생 유대 관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52년생 쉽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64년생 절대로 순간적인 기분에 좌우되어서는 아니 되는 법이다. 76년생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88년생 기묘한 성공 앞에서 놀라게 될 것이다. 00년생 함께 한다면 충격을 완화 할 수도 있다.</p> <p>행운의 숫자 : 36, 67</p>	<p>戌 32년생 갈림길에 서게 된다. 44년생 배려하는 입장에 서다보면 꼬인 일도 풀리리라. 56년생 치열함의 강도에 따라서 좌우 될 것이다. 68년생 일정한 곳에 안전하게 뒤야만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80년생 남남이 조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92년생 교체를 주어야만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할 수 있다.</p> <p>행운의 숫자 : 32, 30</p>
<p>辰 41년생 사소한 부주의가 구설과 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53년생 실질적인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될 것이나, 65년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77년생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일로 부실하게 된다. 89년생 교체되면서 원점으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01년생 폭넓은 인식은 풍요로운 삶을 이끄는 요체이다.</p> <p>행운의 숫자 : 98, 77</p>	<p>巳 39년생 부담이 따를 수 있으니 각오하라. 51년생 무난한 상태에서 대체적인 성과가 보인다. 63년생 어두움이 사라지면 희망의 광채가 밝아 온다. 75년생 편견에 사로잡힌다면 나쁜 상황이 된다. 87년생 불필요한 걱정은 심신을 쇠잔케 할 뿐이다. 99년생 주된 것을 등한시하고 종된 것에 관심을 둘 수도 있겠다.</p> <p>행운의 숫자 : 94, 04</p>	<p>亥 33년생 직접 다루어야 할 문제라. 45년생 즉시 이뤄져야겠다. 57년생 제대로만 한다면 대박 나겠다. 69년생 지난날의 실적이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는 힘이 된다. 81년생 원인이 파악된다면 지체 없이 처리하라. 93년생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불만해지리라.</p> <p>행운의 숫자 : 82, 85</p>
<p>巳 40년생 유대 관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52년생 쉽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64년생 절대로 순간적인 기분에 좌우되어서는 아니 되는 법이다. 76년생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88년생 기묘한 성공 앞에서 놀라게 될 것이다. 00년생 함께 한다면 충격을 완화 할 수도 있다.</p> <p>행운의 숫자 : 36, 67</p>	<p>辰 41년생 사소한 부주의가 구설과 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53년생 실질적인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될 것이나, 65년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77년생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일로 부실하게 된다. 89년생 교체되면서 원점으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01년생 폭넓은 인식은 풍요로운 삶을 이끄는 요체이다.</p> <p>행운의 숫자 : 98, 77</p>	<p>亥 35년생 모든 일에는 예외도 있다는 것을 알라. 47년생 갈구해왔던 바가 실현 될 것이다. 59년생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가 필요한 때이다. 71년생 새로운 틀이 짜이고 관계가 형성되리라. 83년생 상대적일 수 있다. 95년생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치면서 성과를 도출하는 국량이 이른다.</p> <p>행운의 숫자 : 41, 25</p>